

## 메시지 4

### 제단과 장막의 생활을 하는 것의 회복

성경: 행 7:2, 롬 4:12, 히 11:8-10, 창 12:1-4, 7-8, 13:3-4, 18

#### I.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.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활이다—갈 3:6-9, 롬 4:12.

- A.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고 행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을 거절하고, 자신을 제쳐놓고, 자신을 잊어버리며, 다른 어떤 분에 의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—갈 2:20.
- B.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이 현재 우리 가운데서 반복되고 있다. 오늘날 교회생활은 아브라함의 생활과 역사의 수확이다—롬 4:12.
- C.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, 더 이상 자기 자신에 의해 살고 행하지 않는 사람, 천성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있는 사람,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지도로 취하는 사람이다—창 12:1-4, 히 11:8.
- D.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.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요소가 아브라함의 존재 안으로 옮겨 부여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—행 7:2.
  - 1. 일단 우리가 이러한 옮겨 부음을 받으면,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존재 안으로 스며드는 영적 주입을 체험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소가 침투될 것이다—롬 8:6, 11.
  - 2. 믿음은 하나님의 옮겨 부음과 주입과 적심에 의해 산출되는,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—히 12:2, 갈 2:20, 참조 막 11:22.

#### II.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교회를 우리의 생활로 취하여 반드시 제단과 장막의 생활을 해야 한다—롬 4:12, 히 11:9, 창 12:7-8, 13:3-4, 18.

- A. 제단은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—창 8:20, 시 43:4상, 참조 요 1:14, 29, 4:24.
  - 1.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이시며, 우리의 생활의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.
  - 2. 아브라함은 먼저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돌아본 다음,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았다—창 12:7-8.
- B.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한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 땅에서 다만 체류자의 생활을 한다는 것을 증언했다—히 11:9-10.
  - 1. 장막은 제단의 결과이다. 제단과 장막은 연관되어 있으며, 분리될 수 없다.
  - 2. 장막을 세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—히 11:15-16.
- C.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(갈 3:7)인 우리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(히 11:9, 13, 뻔전 2:11) 이 땅에서 이동하며 장막을 치는 순례자들이어야 한다.
- D.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하지만 이 땅에 거주하지 말아야 하는데,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이시고(시 90:1), ‘우리의 국적은 하늘들에 있기’ 때문이다(빌 3:20). 땅에서 우리는 ‘정처 없이 다녀야’ 한다(고전 4:11).
  - 1. 우리는 지구상 각처에 지방 교회가 있을 때까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,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,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교회생활을 확산시키는 이주자들이 되어야 한다.
  - 2. 교회는 이주를 위해 사람들을 내보낼수록 사람들을 더 얻는다. 교회는 사람들을 붙잡을수록 더 잃는다.

3. 주님의 회복을 확산하기 위해 이주하려는 부담을 갖기보다 우리는 정착하고 고정되고 사로잡혀 있을지 모른다—참조 마 8:20.
  - E. 아브라함은 그의 첫 번째 제단(창 12:7)을 쌓은 후, 벨엘과 아이 사이에 두 번째 제단을 쌓았는데, 벨엘과 아이는 서로 반대되는 도시였다(8절).
    1. ‘벨엘’은 ‘하나님의 집’을 의미하고, ‘아이’는 ‘폐허의 무더기’를 의미한다.
    2. 부름 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오직 교회생활인 벨엘만이 가치가 있고, 다른 것은 다 폐허의 무더기일 뿐이다.
- III. 아브라함은 실패하여 제단과 장막을 버린 적이 있었다. 그러나 그는 회복되었고, 그 회복은 제단과 장막으로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다—창 12:9-10, 13:3-4, 롬 10:12-13, 12:1-2.
- A. 결국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장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통하실 수 있는 곳이 되었다—창 13:18.
  - B.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이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은 이스라엘 자손이 쌓은 제단이 있는 증거막의 예표였다—출 38:21.
  - C. 나그네와 체류자인 아브라함은 “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,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다.”—히 11:10.
    1. 아브라함은 제단과 장막의 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이 외국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했다—히 11:9.
    2. 탁월하고 사랑스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민이 기대하는 소중한 것이자 하늘에 속한 순례자들의 목적지와 목표이다—히 11:13-16.
    3. 아브라함의 장막은 최종적인 천막, 하나님의 최종적인 장막인 새 예루살렘의 축소형이었다—창 9:26-27, 12:8, 13:3, 18:1, 히 11:9, 계 21:2-3.
    4. 우리는 교회생활이라는 ‘장막’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 최종 완결, 곧 최종적인 ‘회막’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다—딤후 3:15, 레 1:1, 히 11:10.
  - D. 이기는 이들은 영원한 장막이자 최종적인 장막절인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며 장막에서 산다—계 21:2-3, 레 23:39-43.
    1. 유월절은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, 장막절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완전한 구원의 완결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—요 6:4, 7:2, 37-38.
    2.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천막(장막)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장막절을 정하셨다. ‘장막’이라는 말은 기억의 사상을 함축한다—신 16:13-15.
    3.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절기를 위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좋은 땅의 산물을 누리던 것은 쉬임에 대한 실지적인 그림이다—고전 12:24.
    4. 장막절이 일종의 기념하는 잔치인 것과 같이, 주님의 상은 기념하는 잔치이다—눅 22:19-20.
    5. 우리가 쉬임을 위해 단계적으로 함께 모여 좋은 땅의 산물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면서 오늘날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광야에 있으며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의 안식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—계 21:2-3.